

국제 석유시장의 최근 동향과 항방

金仁吉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역 2실·실장〉

1. 1991년 국제 석유시장의 특징

1991年度の 국제유가는 원활한 수급과 걸프전쟁 종전에 따른 불안 심리 해소에 적정가격 수준에서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 이유는 '91년도 석유시장이 다음 3가지 안정 요인에 바탕하여 형성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즉 (1) 유가에 미치는 심리적 불확실성 축소, (2) 석유시장에 대한 사우디 지배력의 절대적인 優位, (3) 유가 결정에 관한 산유국과 소비국간의 의사 교환 촉진이 바로 그것이다.

국제유가는 수급요인과 심리요인의 두 복합 작용으로 결정되는데 80년대 후반부터 후자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어 왔었다. 1989년 3월의 발데즈항 원유 누출사고, 1989년 4월의 북해 유전 사고 등은 그 좋은 예이다. 이외에도 과거 유가 동향을 살펴보면 작은 사고 또는 공급장애 우려가 의외로 큰 가격상승을 초래했던 경우가 많았다.

심리적 유가 상승이 극심했던 기간은 1990년 8월 2일(이라크의 쿠웨이트 점령) 부터 1991년 1월 16일(걸프전쟁 발발) 기간 동안이었다. 그 기간중 실질적 공급부족사태는 없었는데도 시장에는 10달러 내외의 불안가격이 반영, 국제유가는 30달러 내외

를 지속하였다. 걸프전쟁 발발 직후인 '91년 1월 17일 유가가 11달러 급락한 것은 이러한 불안 심리가 해소된데 기인한다.

걸프사태로 석유시장은 심리적 면역이 강해졌다. 이라크, 쿠웨이트석유수출중단에 따른 4백만배럴/일 이상의 갑작스런 공급 중단도 견뎌내었으며, 中東 유전지대에서의 전쟁도 겪었다.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도 예상될 수 있는 석유시장의 돌발사태에 대한 소비국의 대응능력을 높였으며, 이는 유가 급등을 저지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종합해 볼 때, '91년도 유가는 배럴당 16~22달러의 변동범위를 가지나 평균가격은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OPEC의 감산의지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소비국의 이해가 다같이 부합될 수 있는 적정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종전이후 OPEC와 소비국간의 협력 방안 모색이 추진중이며, 이는 전후 복구, OPEC 원유생산 능력 확대, 소비국에 대한 OPEC의 하류부문 진출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OPEC와 소비국간의 협력과정에서 유가결정에 관한 소비국 영향력도 좀 더 확대될 수 있다. OPEC 평균유가 18달러 내지 20달러가 양측의 공통적인 수용범위인 것으로 생각된다.

2. OPEC 감시위원회 이후의 국제유가 전망

OPEC 감시위원회(9월 24~25일, 스위스 제네바)는 (1) \$21/b의 최저기준가격을 재확인하고, (2) 1991년 4/4분기 생산상한을 23.65백만 b/d로 결정하는데 합의하였다(3/4분기 생산상한 : 22, 298백만 b/d).

이번 회의에서는 시장안정을 이유로 전체 생산상한을 24~24.5백만 b/d로 크게 확대해야 하고 유가는 시장기능에 따라 결정(즉, 기준가격의 철폐)되어야 한다는 사우디 그룹과 \$21/b의 최저기준가격 달성을 위해서는 생산상한을 소폭 증가하는데 그쳐야 한다는 이란, 리비아, 알제리 그룹과의 절충으로 상기 합의가 도출되었다.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쌍방이 만족을 표명하고 있다. OPEC 석유장관들은 이번

의 생산 상한이 지켜진다면 4/4분기 석유 수요 증가에 따라 기준유가 목표 달성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석유 시장에서도 감수기의 점진적 유가 상승에 대해서는 대체로 견해가 일치한다.

상기 생산상한은 OPEC의 현재 생산 수준과 거의 일치한다. 이는 사우디가 8.5백만 b/d, 기타 OPEC국이 최대 능력까지 생산할 경우 달성되는 것으로, 개별 국가의 생산상한 지정은 하지 않았다.

지금의 OPEC 평균 유가는 18.5~19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감시위 결과는 현물 유가에 별 영향을 주지 않았다. 금년 4/4분기 對 OPEC 원유 수요전망은 24백만 b/d 내의 <OPEC 경제 위원회 : 23.65백만 b/d, OPEC 사무국 : 23.68백만 b/d, PEL : 24.0백만 b/d, 사우디 : 24.0~24.5백만 b/d이며, OPEC 원유생산도 같은 수준이 예상된다.

OPEC 평균유가

(단위 : \$/B)

	1월	2월	3월	1/4	2/4	3/4	4/4	연간
1989	15.20	15.26	16.71	15.73	17.07	16.02	17.44	16.56
1990	19.04	18.06	16.87	17.99	14.30	23.57	29.23	21.27
1991	21.24	16.21	16.34	17.93	16.41	17.76		

따라서 금년 4/4분기 석유시장은 수급균형이 이루어짐으로써 OPEC 평균 유가는 현재 수준보다 다소 상승한 \$20 내외(변동범위 \$19~22/b)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OPEC 생산능력이 한계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돌발사태(소련 수출감소, 북해 유전 사고 등) 발생시는 일시적인 유가 급등의 우려가 있다.

OPEC 최근 원유생산 실적과 生産上限

(단위 : 백만 B/D)

	생 산 량		쿼 타		생산능력
	7월	8월	3/4	4/4	
사우디아라비아	8,145	8,600	8,034	-	9.0
이 란	3,500	3,325	3,217	-	3.3
이 라 크	0.276	0.290	-	-	0.6
U A E	2,283	2,275	2,320	-	2.5
쿠 웨 이 트	0.063	0.200	-	-	0.3
카 타 르	0.393	0.395	0.399	-	0.4
나 이 지 리 아	1,867	1,900	1,840	-	2.0
리 비 아	1,457	1,475	1,425	-	1.5
알 제 리	0,800	0,790	0,827	-	0.9
가 봉	0,300	0,295	0,285	-	0.3
베 네 수 엘 라	2,283	2,300	2,235	-	2.5
에 콰 도 르	0,263	0,288	0,273	-	0.3
인 도 네 시 아	1,433	1,425	1,443	-	1.5
計	23,073	23,558	22,298	23,650	25.1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석유시장 기조는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1992년에는 자유세계 경제성장이 3.2%로 회복됨에 따라 석유소비도 2.5%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80년대 후반의 정상 수준에 해당한다. 반면 쿠웨이트 및 이라크의 원유 수출 재개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나 그 물량은 크지 않을 것이다. 또한 소련의 석유純輸出 또는 非OPEC 석유생산이 늘어날 가능성도 희박하다. 결국 '92년의 對 OPEC 원유수요는 '91년에 비해 0.5~1 백만 B/D 정도 증대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OPEC내 사우디의 위치와 우월한 시장 영향력도 큰 변동없이 그대로 지속되는 상황이 형성된다. 이런 점을 모두 감안할 때 1992년의 OPEC 평균유가 전망은 1991년 대비 5% 정도(배럴당 1달러) 상승한 19~21달러 내외가 유력하다.

3. OPEC 가격정책의 향방

이번 9월말 OPEC 감시위원회의 결과는 생산상한을 135.2만 b/d('91년 3/4분기: 22.298백만 b/d → '91년 4/4분기: 23.65백만 b/d) 증대시키는 한편, OPEC Basket 기준유가 21달러 고수를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9월 현재 시장가격이 기준유가보다도 3달러 정도 미달하는 시점에서「생산상한을 증대시키면서도 기준유가 21달러는 방어하겠다」는 결의는 OPEC의 가격정책 한계성을 노출시킨 것이다.

지금의 OPEC Basket 유가 21달러는 '90년 7월에 결정된 것으로 '85년 불변가격으로는 17달러에 불과하다. 그동안 OPEC는 효과적인 유가방어책으로 개별 쿼타제도를 도입,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회원국의 생산상한 위반이 다반사로 이루어져 이것이 유가약세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OPEC의 Basket 기준유가는 실질기준('85년 불변 가격기준, 이하 동일)으로 '87년도 16.9달러(경상가격: 18달러), '88년도 16.3달러, '89년도 15.7달러 그리고 '90년은 16.4달러(경상가격: 90년 상반기: 18달러, 하반기: 21달러를 보여왔다.

사실상 OPEC가 추구하는 적정 유가수준은 주요 석유소비국의 물가 상승율에 맞추어 유가도 同等率로 상승되는 실질유가 개념일 것이다. 이는 OPEC에게 석유수출의 실질 收入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이

다. 지난 '80년 이후 선진국(OECD)의 물가 상승율은 3~9%를 기록한 바 있으나 유가는 오히려 큰폭으로 하락, '86년도「가격전쟁(Price War)」시에는 무려 전년대비 50%가 급락하였다. 현재 OPEC이 실질유가 21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준가격을 26달러로 설정해야 하나 이는 결속력 강화 이후의 문제이다.

OPEC는 '60년 창설이후 일련의 가격지지정책을 추구하여 왔다. '62년도의 개별 회원국별 수입제품 가격지수 연동제도, '66년도의 과세기준 공시가격제도, '69년도의 주요 선진국 제품가격지수 연동제도 그리고 '70년도 주요 선진국의 통화가치 연동제도 등을 실시, 개별 회원국들에게 이를 준수토록 권고하여 왔다. 또한, '71년도에는 23개 주요 국제석유사간에 테헤란 협정을 체결, 사우디산 아라비안라이트 원유가격을 배럴당 2.186달러로 설정하고 이를 연차적으로 0.05달러 인상하는데 합의한 바도 있었다. 이 협정으로 아라비안라이트 원유가 OPEC의 「기준유종(Marker Crude)」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80년대 들어 소비국의 지속적인 석유수요 감소와 이에 따른 약세시황이 형성, OPEC는 효과적인 가격지지정책의 일환으로 쿼타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개별 회원국은 쿼타 以上の 산유량을 유지하였으며 대표적인 쿼타 위반국은 쿠웨이트와 UAE였다. 동시에 가격약세도 지속되었다. OPEC은 추가적인 가격하락 저지책으로 '87년에 원유의 품질별 Basket을 구성, 기준가격을 18달러로 결정하고 '90년 7월부터는 이를 3달러 인상한 21달러로 설정하였으나 현재까지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다. 오히려 대부분 회원국은 석유 판매가를 지역 현물유가(WTI, ANS, Brent, Dubai, Oman)에 연동시키는 이른바 현물유가 연동제도를 채택, 시장가격에 의존하는 실정이며, OPEC의 기준가격은 아직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실질유가 약세는 OPEC에게 석유수출수입을 감소시키고 있다. '80년도 석유수출수입은 실질기준 3,782억달러로 최고에 달하였으나 이후 감소세로 반전, '86년도「가격전쟁」시는 724억달러로 최저를 유지, '80년 대비 20% 수준에 불과했다. '89년도는 1,018억달러로 전년대비 238억달러가 증대되었

으며 '89년도의 OPEC Basket유가는 실질 기준으로 15.11달러(경상유가: 17.31달러)였다. 특히, '89년도는 '80년대 들어 처음으로 석유수출수입이 증대된 해였으나 이는 OPEC의 내부 결속력 강화에 의

해서가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 즉, 소비국의 석유소비 증가, 非OPEC의 석유생산 감소 및 공산권의 석유 純輸出 정체등에 힘입은 것이었다.

OPEC 石油 輸出 收入의 경향 및 실질기준 비교 (단위: 10억 달러)

	經常收入(증감율)	實質收入(증감율)	OECD GDP 디플레이터
1980	284.5	378.2	75
1982	202.8(-60.5)	230.5(-90.7)	88
1984	143.6(-13.4)	148.7(-20.8)	97
1985	127.2(-16.4)	127.2(-21.6)	100
1986	76.7(-50.4)	74.2(-53.0)	103
1988	85.9(- 6.7)	78.0(- 8.9)	110
1989	116.6(30.7)	101.8(23.8)	115

註) 1. ()의 값은 전년대비 기준 2. 석유수출 실질수입은 '85년 불변기준

현재 일부 회원국에서 효과적인 유가관리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유가지지파인 알제리는 OPEC의 현재의 고정유가제도(Fixed Pricing System)에서 탈피, 일정범위를 갖는 변동유가제도(Flexible Pricing System)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거래소(Trading House)」를 설립하고 동 거래소가 OPEC産 수출원유중 2백만 B/D 혹은 10%를 관리 시장수급을 조절하면서 유가를 일정 범위내에서 유지토록 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中東 OPEC는 특정 산유국의 인위적인 가격조작책보다는 「油價는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며, 소비국의 수요 증대에 따른 산유량 증산을 주장한다. 금번 監視委에서도 사우디는 쿼타증대를 주장한 바 있으며 사실 상 이를 관철시켰다. 특히, 걸프戰은 사우디의 석유 정책을 재차 확인시켜 준 계기가 되었으며 걸프전이 후 미국과 사우디간의 유대강화는 OPEC의 유가인상노력에 부정적으로 작용, 금번 감시위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유가관리정책에서 OPEC는 가격지지파인 非中東OPEC과 물량지지파인 中東OPEC간의 견해차로 실질적인 유가인상방안이 제시치 않고 있다. 이의 근원적인 문제는, 인구가 적고 자원 매장량이 큰 中東 OPEC 그룹과 많은 인구나 적은 자원 매장량을 가진 非中東 OPEC 그룹간의 석유정책 차이에서 기인된다. 중동 OPEC는 고유가를 지양함으로써 소

비국의 석유소비 촉진, 대체 에너지개발 지연 및 非 OPEC의 석유생산 감축 등을 유발, 장기적인 석유시장 점유율을 확대한다는 정책을 선호하고 있다. 반면, 非中東 OPEC는 자원의 한계성으로 고유가를 통해 석유수출수입 극대화정책을 추구한다. 앞으로 OPEC 가격정책을 둘러싼 논란과 개선방안이 계속 제기될 것 같으며, OPEC 가격정책의 의미도 지금까지의 선언적 의미에서 조만간 명실상부한 것으로 그 중요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4. 선진국의 에너지稅 도입과 OPEC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문제가 범세계적인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지구 온난화 요인으로는 인구규모, 경제활동 수준, 에너지 이용 및 연료사용형태 등이 지적된다. 지구 온난화의 주요 방책인 CO₂ 배출 규제 방안은 에너지소비 원단위 개선과 연료대체(전환)가 가장 유효한데 이는 곧 석유소비 절감과 연관된다.

OPEC은 기회 있을 때마다 석유소비 절감과 관련되는 선진국의 에너지가격 차별정책을 비판해 왔다. 특히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과 통합후 에너지가격체계 개편을 겨냥하여 현재 EC를 중심으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에너지稅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이번 監視委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명백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었다.

현재 일부 선진국 특히 유럽지역에서 지구 온난화

선진 4개국의 탄소稅率

(단위 : 달러)

	美國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가솔린 및 디젤유	3.25/b	16.03/b	2.73/b	11.51/b
석탄	15.00/t	97.69/t	1.49/t	3.89/t
L P G	N.A	118.17/t	1.94/t	N.A
천 연 가 스	0.40/t	2.63/10 ³ ft ³	0.029/10 ³ ft ³	0.08/10 ³ ft ³
發 效 日	N.A	'91년 1월	'90년 2월	'90년 1월

註) * 하인위윈 Pete Stark가 제출한 H.R. 4805 法案임
 〈자료〉 NBER('91.3). Tax Policy to Combat Global Warming Designing A Carbon Tax

극복책으로 탄소세가 도입되고 있다. 에너지 소비중 화석연료의 비중이 낮거나 에너지 利用效率이 높은 국가, 해수면 상승으로 타격이 심한 국가에서 탄소세 도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독일은 환경적 손실의 사회적 비용을 연구중이며 환경개선을 위한 재정정책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중이다. 이탈리아는 '89년 10월, 일연의 「생태세 (ecological taxes)」를 도입하였으며 이에 는 스모그 및 유황방출 등에 관한 稅등이 포함되어 있다. 네덜란드는 5개년계획('89~'94)을 수립, 환경보호 지출비용을 기준 GDP 비율대비 2배로 증대시킬 방침이다.

현재, 선진국은 국별 혹은 블록別 CO₂ 배출억제에 관한 장기정책을 추진중이다. 동정책은 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①CO₂ 배출규제를 위한 기금마련 국가(덴마크, 네덜란드), ②정책추진상에 조건 및 잠정조항이 부가된 국가(호주, 독일, 노르웨이, 영국), ③그리고 경제성장에 따라 유동적인 목표를 설정한 국가(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④CO₂ 배출규제 혼합정책추진 국가(미국)로 대별되어진다.

선진국들의 지구 온난화 규제정책은 감축량, 시행년도 및 종료년도에서 상이할 뿐만아니라 온실가스 규제종류에서도 상이하다. OECD 국중 6개국은 구체적인 CO₂ 배출 억제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90년 10월 EC의 룩셈부르크 협정하에서 포괄정책을 추진중이며 이 협정은 CO₂ 방출량을 2000년까지 '90년 수준으로 유지키시는 것이다.

미국은 「국가에너지전략」을 통하여 2000년까지 온실가스를 '90년 수준이하로 감축할 방침이다.

지구온난화 문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국제간 해결과제로서 선진국, 개도국 및 공산권간 그리고 또는 OPEC-석유소비국가간 등 국제간 이해관계가 일치되지 않고 있어 협력이 용이한 것은 아니다. CO₂ 배출 규제가 향후 선진국의 對개도국 통상압력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도 병행추진되어야 한다. 개도국이 지속적인 에너지소비 원단위 개선, 연료전환능력 향상 및 소비절약을 통해 합리적인 低에너지산업구조로 이행하는 것은 지구 온난화문제 뿐만아니라 예상되는 선진국의 통상압력에서 벗어나는 길도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東歐 및 蘇聯의 변화로 냉전체제는 종식되고 있지만 경제경쟁은 더욱 심해져가고 있다. 선진국의 에너지稅 도입과 이에 대한 OPEC의 불만이 첨예하게 대립될 경우에는 특정국을 대상으로 한 인위적인 석유공급 제한조치도 상정할 수 있다. 1973년의 제1차 석유위기는 정치적 이유(이스라엘 지원국에 대한 OPEC의 석유수출 제한선언)에서 비롯되었고 1979~80, 1990년의 석유위기는 전쟁에 의한 것이었으나, 향후의 새로운 석유위기는 경제적 이유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 싹점은 OPEC의 석유생산능력이 한계에 달하고 中東 산유국이 걸프전쟁의 후유증에서 어느 정도 회복되어 결속력이 강화되는 90년대 중반이 될 수도 있다. ♠

企業人은 좋은 製品, 소비자는 바른 消費